

매일 큰 고개를 넘고 있는 아이들에게

강남구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사이심

지정우, 서민우, 고건수

(주)이유에스플러스 건축사사무소 소장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20(대치동 1023) 2~3층
용도	청소년 심리상담, 휴식놀이 공간
연면적	469m ²
규모	지상 2층
설계	(주)이유에스플러스 건축사사무소(서민우, 지정우, 고건수)
설계담당	이소림, 박다혜, 이창민, 서가영
시공	인영건설
내부마감재	점토타일, 구로철판, 자작나무 합판, 마루, 비닐계 타일, 벽지, 와이어메시 등
설계기간	2020.9.~2020.11.
시공기간	2021.1.~2021.4.
건축주	강남구 보건소

©(주)이유에스플러스 건축사사무소, 주원동



학원가 한복판에서 불빛을 밝히고 있는 사이심

건축가에 의한 공간적인 개념은 대치동 일대의
청소년들 일상에 '사이'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잠시 잠깐 학원 시간과 시간 사이에 들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 한잔을 하거나, 친구를 기다리거나,
핸드폰을 쓰거나, 작은 구절을 들춰 보기만 해도
괜찮은 곳, 그나마 마음이 동하면 심리 상담을 받거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청소년을 반겨주는 2층 라운지 공간

↑
NICE
|



©(주)이유에스플러스 건축사무소, 주현동



©(주)이유에스플러스 건축사무소, 주현동



©(주)이유에스플러스 건축사무소, 주현동

개인 상담실과 사이 공간

상 모든 벽이 곡면 처리되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조성된 3층
하 물리적으로 떨어져 조성된 개인 상담실



상 3층 상담실 사이 공간
하·좌 창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개인 공간
하·우 부드럽고 직관적인 형태의 사이니지



상 2층 라운지 뒤 다양한 형태로 마련된 개인적인 공간
하 2층 휴식공간 겸 작업공간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사이사이에
모듈형 상담실을 배치하여 상담 전후로 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이 공간'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곳은 상담자뿐만 아니라 상담가에게도 편안한 환경을 동시에 제공한다.



©(주)이유에스플러스 건축사무소, 주원동

식재와 타일 마감의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2층 대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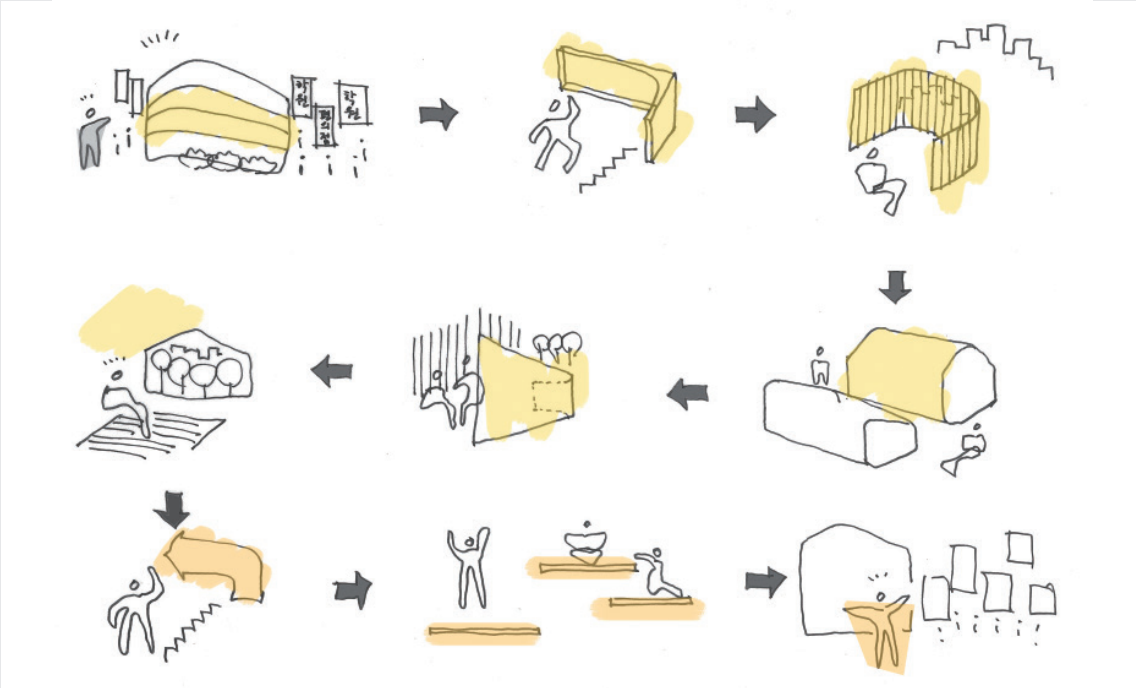
넘기 힘든 큰 고개를 넘고 있는 학생들

학교는 가장 치열한 곳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다음 세대인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 시
기의 청소년들은 학교만이 아니라 학원가에서도 경쟁을 이어가고
있고, 여러 드라마들에서도 그 상황은 잘 드러나 있다.

그 정점에 있는 곳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다. 대치동의 한자
는 '넘기 힘든 큰 고개'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곳에 있던 큰 돌산에
서 유래한 이름이고 물리적으로도 평평하지 않은 지형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심리적인 큰 고개로 다가온다. 뻥뻥한 학원가들이 밀
집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학생들은 편의점 음식들로 끼니를 해결해
가며 다음 학원으로 옮겨 다니는 힘겨운 일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
이다.

그 힘겨운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은 과연 어
떤 상태일까. 대치동의 수많은 건물들은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을
까, 아니면 힘겨움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을까. 수학, 영어, 국어, 과
학 등등의 과목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건물들로 채워진 대치동은
아이들에게 그 자체로 거대한 시험문제지 같진 않을까.

©(주)이유에스플러스 건축사무소



도시에서 사이실을 발견하고 공간을 경험하며 변화하는 청소년의 상황을 표현한 설계 전 스케치

©(주)이유에스플러스 건축사무소, 주원동



상 학원가 한복판에서
불빛을 밝히고 있는 사이실
하 청소년을 반겨주는 2층 라운지 공간



©(주)이유에스플러스 건축사무소, 주현동



상 개인 상담실과 사이 공간
중 모든 벽이 곡면 처리되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조성된 3층
하 물리적으로 떨어져 조성된 개인 상담실

학원가 한복판에서 '사이'를 만들자

강남구 보건소의 심리상담 선생님들은 보건소 내에서 이런 학생들의 심리상담 및 심리 치료 등을 계속해 오다가 그들의 정신건강을 돌보아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것도 기존의 보건소 내에 만들어서 바쁜 학생들이 가볼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장벽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 그들의 치열한 일상의 현장인 대치동 학원가의 한복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야 그들이 쉽게 들를 수 있고,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질 여건이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마음으로 기획과 제안을 하고 구의원·시의원들을 설득해 가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건축가를 찾아다녔다. 마침 12세에서 16세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 전용 공간인 '우주로 1216'이 전주에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곳을 설계한 건축가를 수소문하여 연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그에 담긴 바람을 전해 들었고, 여러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계약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독립된 '청소년 심리지원 공간'에 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건축가에 의한 공간적인 개념은 대치동 일대의 청소년들 일상에 '사이'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 사이가 편의점이나 커피점이 아닌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공공간이길 바랐다. 잠시 잠깐 학원 시간과 시간 사이에 들러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차 한잔을 하거나, 친구를 기다리거나, 핸드폰을 쓰거나, 책 한 구절을 들춰 보기만 해도 괜찮은 곳, 그러다 마음이 동하면 심리 상담을 받거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건축가는 네이밍을 '사이쉽'으로 제안하였다. 사이쉽은 두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대 빌딩인 이곳의 2층은 휴식 공간이며 3층은 상담 공간으로 사용된다. 우리는 사용자 인터뷰를 토대로 공간 기획과 설계를 시작으로 각 영역의 사이니지 디자인까지 진행하였다.

놀이와 상담의 사이, 실내와 실외의 사이

공공기관인 강남구 보건소가 국내 최초로 만든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쉽은 건축가에 의해서 기존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나, 반대로 상업적 공간이 가지고 있는 부담스러운 이미지 사이에서 친근하고 환대하는 느낌을 공간적으로 구현되었다. 즉 이전에 없었던 공간 유형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인 상담 공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청소년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한 개 층을 과감히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사이쉽은 강남구 일대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강남구 보건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강남구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마주한 고난과 힘듦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이 큰 고개를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온전하게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장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사이쉽을 디자인하여 그들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이 창가에 앉아 거리와 도시를 멀리멀리 바라보며, 대치동 학원가의 닫힌 공간을 넘어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스스로 사색하고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였다.

사이터와 사이숲

휴식을 위한 공간 '사이터'는 사이쉽의 2층에 위치한다. 사이터는 학교-학원-집의 쳇바퀴를 도는 학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라운지형 로비가 중앙에 위치하고 창가에는 모듈형 개인 공간, 창작 공간, 녹음과 신체활동을 위한 다목적실이 차례대로 위치한다. 중앙의 라운지와 창가 공간은 나무 창살로 구분되어 적절한 개방감을 준다.

©(주)이유에스플러스 건축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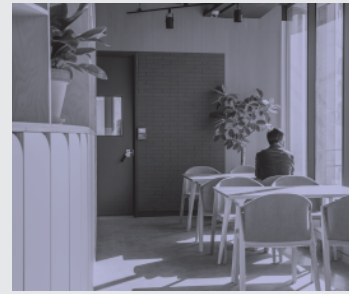


기본설계 당시 2층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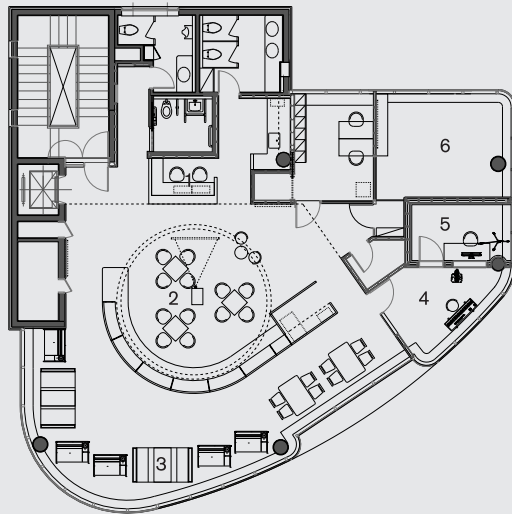
기본설계 당시 3층 모형

©(주)이유에스플러스 건축사무소, 주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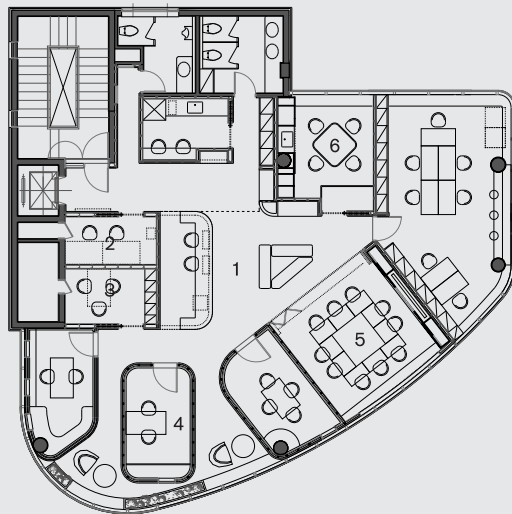
상 2층의 자유롭게 쉬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
하 2층 휴식공간 겸 작업공간

1. 인포 데스크
2. 로비 / 미니 북카페
3. 휴식공간 / 작업공간
4. 운동실 '풀장'
5. 노래방 '놀장'
6. 영화관 및 휴식공간 '팅글장'



2층 사이트 평면도

1. 인포 데스크 / 로비
2. 뉴로피드백훈련실
3. 심리평가실 '두드림'
4. 상담실 '풀림'
5. 집단치료실 '어울림'
6. 놀이치료실 '헤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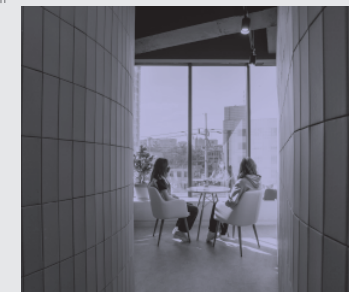
3층 사이트 평면도

상담을 위한 공간 '사이숲'은 사이트에서 한 층 위에 있다. 첫 방문과 동시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위해서, 상담가들의 업무 루틴을 모두 분석하여 공간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사이사이에 모듈형 상담실을 배치하여 상담 전후로 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이 공간'을 두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곳은 상담자뿐만 아니라 상담가에게도 편안한 환경을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보통의 상업 공간은 실내로 들어가면 외부와 거의 완벽히 차단되거나 관계가 없는 데 반해 이곳은 내부에서도 도시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박스형의 밀집한 대치동 거리에 대비되는 '원형과 곡면의 도시적 틈'을 제공한다. 주변 학원의 공간들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인원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공공 공간인 학교보다도 더더욱 필요 공간으로만 채워져 있다. 이 많은 학원들이 갖지 못하는 도시적 공간, 그것이 사이숲의 또 다른 의미이다.

마음을 추스르는 사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인 상담은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자발적인 마음은 공간이 답답하거나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어려울 것 같으면 생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이숲의 상담실과 상담실은 서로 틈을 갖고 떨어져 있다. 자신이 상담받고 있는 공간과 옆 상담 공간이 벽 하나로만 나뉘져 상담실에 들어서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상담을 받고 난 청소년들은 마음을 추스를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그 순간에는 다른 상담자의 눈길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통 상업 공간에서 칸과 칸, 방과 방으로 공간을 일률적으로 나누는 관습을 뒤집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는 다음 세대의 공간에 대한 건축가의 오랜 고민과 심리상담 선생님들의 현장 경험 및 공감의 만나 만들어 낸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상 3층 대기 공간과 집단 프로그램실
하 3층 상담실 사이 공간



©(주)이우에스플라스 건축사사무소, 주원동



상 상담 영역의 대기 공간
하 부드럽고 직관적인 형태의 사이니지

마음에 닿는 재료와 감각

재료의 색상과 질감이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는 동시에 사이넵만의 사이니지를 개발하여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점자 안내)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로비 한가운데에 오픈 플랜(Open Plan) 공간을 두어 이용자들이 정해진 공간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공간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엘리베이터가 주 출입구 쪽에 있어서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실내 공간에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투시 창을 적용하고(개인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상담실 공간은 불투명으로 처리), 드나들이 많은 공간에는 문을 없애거나, 반자동 미닫이문을 설치하여 문이 닫힐 때까지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기존 관공서 실내공간과 다르게 석고보드와 페인트 일색인 마감에서 벗어나 벽돌 타일, 자작나무, 루버를 주재료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타일의 색과 수직·수평 패턴에 따른 용도 구분으로 2층과 3층 공간의 통일성을 주는 동시에 차별성을 주었고, 칸막이 벽을 두는 대신에 빌딩에 있던 기존의 커튼월을 그대로 사용하여 외부 파노라마 뷰를 내부로 확장하여, 학원가인 대치동 한복판에서는 보기 힘든 안락하면서도 개방적인 공간을 디자인하였다. 라운지 중심의 오픈 플랜 디자인은 지시적이거나 정해진 공간이 아닌, 청소년들이 각자의 감각과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이넵의 확산

학원가 한복판에 청소년 심리지원센터를 짓기 위해 건축가를 찾으신 심리상담 선생님들은 심리상담의 과정을 자세히 전달해 주시고, 건축가들은 그 과정을 시각화하며 그 너머의 청소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정과 쉼을 주기 위한 공간적 아이디어를 더하여 사이넵들이 생겨났다. 국내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사이넵 사례 이후에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청소년 심리지원센터를 계획 중이며, 사이넵은 개관 이후 활발한 심리지원 체계로 지역에 큰 영향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쟁 사회와 출생률 저하의 시대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이자 개인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